서울대학교 사범대학
同窓會報
home page : www.snueaa.or.kr
E-mail : snueaa@kornet.net

第 144 號
2004年 4月 1日
發行人 辛 東 一
編輯人 俞 千 根

110-070 서울 종로구 내수동 1 대성빌딩 702호 電話 : (02)720-8116 / 720-8120 FAX : (02)720-8117 銀行지로 : 7521964

□ 권두언 □

동창회는 영원한 고향입니다

俞 千 根
본회 상임부회장

우리 동창회는 경성사범학교, 경성여자사범학교 및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생 그리고 그 부설 중등교원양성소와 교원교육원 출신의 통합 동창회로서, 1955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를 정식 발족한 이래 5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은 2004년 2월 졸업생을 포함해 23,900여명으로 대부분의 동문들은 중등학교의 교원과 교육전문직 그리고 대학의 교수로서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행정가, 언론인, 사업가, 예술인, 법조인 및 외교관 등으로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동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주소가 확인되어 동창회보를 발송하고 있는 동문은 10,000여명 정도이며, 주소가 바뀐 후 옮긴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 매월 100여건 정도의 연락 회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비 납부 상황은 연 1,000명 정도로 회보 발송 인원의 10%를 믿돌고 있습니다. 또한 동창회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정기총회, 등산대회, 친목수련대회에 평균 60~70여명이고 송년회에는 100여명 정도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소가 확인되어 연락 가능한 회원 10,000여명 중 10%인 1,000명이 회비를 납부하고 또 그 10%인 100여명 정도가 동창회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문들의 동창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 상태는 좋은 편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많은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고 여러 개의 모임에 참여하며 살아갑니다. 그 모임 중에는 자기가 좋아서 가입하는 자의적인 모임이 있고 조직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회원이 되는 타의적인 모임도 있습니다. 동창회는 후자의 경우로 어쩔 수 없이(?) 회원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나 참여 의식이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은 바꿀 수 있어도 모교는 바꿀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좋든 싫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니 죽고 난 후까지 "그 사람은 서울대 사대 출신"이라는 명함을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음에 내키든 말든 우리는 서울대 사대 출신이라는 간판으로 직장을 갖고 활동하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서울대 사대 출신이라는 명함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크나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아마 부적(負的) 보상(補償)보다는 정적(正的) 보상이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동창회에 어떤 보상을 바라고 참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창회는 고향(故鄕)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아니 영원한 고향입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 그리움과 추억이 정(情)으로 남아 있는 곳이 고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명절 때만 되면 고향을 못잊고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고향을 찾아가는 것 아닌가요? 우리의 학창 시절 꿈이 있고 선배와 후배가 같이 인생을 이야기 하던 곳이 이제는 동창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서울대 사대 동창회는 우리의 동창회이며 나의 동창회입니다. 동문 각자가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는 마음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동창회가 아니고 찰떡처럼 굳게 뭉치는 동문들이 되어 우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를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간절한 기대를 가져봅니다.

(교육학과 17회)

□寄稿□

청량대의 추억

柳 子 孝
불어교육과 동문회장
SBS 논설위원실장

조선조 때 국왕은 1년에 한 차례 친경을 했다. 농자천하지대본을 왕이 직접 시범을 보인 것이다. 그 장소가 선농단이다. 행사가 끝나면 소를 잡아 국을 끓였다. 행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 국에 밥을 말아 먹었다. 왕과 백성이 같은 음식을 들며 일체감을 다진 것이다. 그 국밥을 선농탕이라고 했다. 그것이 시중에 보급되면서 발음하기 편하게 설렁탕으로 불려졌다.

사범대학은 이 선농단 터에 지어졌다.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었던 사대 구내의 선농단은 작은 동산이었는데 청량대(淸凉臺)라고 불리었다. '청량대'는 사대를 상징하는 명칭이었다. 학보 이름이 '청량원'이었으며, 각종 서클의 명칭 앞에도 '청량'이라는 말이 붙는 경우가 많았다.

청량대는 학생들의 쉼터였다. 수업이 없는 시간이거나 점심 시간, 방과 후에는 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이야기 꽃을 피웠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계를 이끌고 있는 힘이 이곳 청량대에서 태동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대 문학회는 청량대에서 시화전을 열었다. 어느 날 정명환 교수가 시화전을 둘러 보시다가 내가 쓴 '바다'라는 작품 앞에서 길게 강평을 하셨다. 그 얘기를 당시 문학회 장이던 신상철씨로부터 전해들은 나는 감격했다. 강의 시간에 그렇게도 무섭기만했던 정교수께서 내 시에 관심을 보이셨다는 것이 꿈만 같았다. 사대 문학회는 매주 한 차례 합평회를 열었다. 우리는 신랄하게 서로의 작품을 비판했다. 합평회에 올라와서 성히 돌아가는 작품이 없었다.

우리는 열정적으로 습작을 했다. 복학생이었던 김태일씨는 아침에 충혈된 눈으로 나타나서는 '밤새 원고지 100장을 썼다가 다 불태워 버리고 나왔다'는 말을 예사로 하곤 했다. 언어에서의 천재성과 불같은 정열을 가졌던 그는 재학 중에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 했다.

66학번의 김재홍씨는 참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다. 언젠가 그가 내게 들려준 '게으르고 싶은 것은 사람의 본능'이라는 말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는 시비평에 일가를 이루고 있고, 경희대 문과대학장으로 재직중이다. 소설을 열심히 쓰던 신상철씨는 평론으로 데뷔했고, 지금은 출판사 사장이다. 재학 중에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해 우리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윤상운씨는 부산에 있다.

68학번 중에는 소설가 이문열씨가 유명하다. 그는 사대 문학의 밤에 '주점 찌그노트의 추억'을 읽고는 군에 갔다. 그것이 사대와의 마지막 인연이었다. 소설을 습작하던 김한영씨도 문단에 데뷔했으나, 오늘날은 TV 드라마 '전원일기'나 '임꺽정'의 연출자로 유명하다. 김재홍씨 못지않게 열심히 공부하고 소설도 부지런히 쓰던 우한용씨는 모교 교수가 됐다. 대부분이 국어과 생들이었던 문학회에 영어과로 유일했던 김철교씨는 시인이 됐다. 70학번들 가운데는 비평을 하는 중앙대 전영태씨와 시와 비평을 겸업하고 있는 한성대 박호영씨가 우뚝하다. 그 아래 후배들 가운데도 시인 김진경, 윤재철, 최두석씨 등 기라성같은 문인들이 배출되었다.

우리는 문학회 선배들에게 찬조를 받아 '창작시대'라는 작품집을 발간했다. 지금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그때의 기개는 대단했었다.

지금도 그 시대를 생각하면 독특한 냄새가 느껴진다. 그것은 아직도 나의 마음을 문득 문득 일깨우는 소금같은 냄새다.

(불어교육과 28회)

우리 동창의
아름다운 이야기

세상에서 하나 뿐인 옷

沈奉錫
상봉교역 사장

뉴욕에 사는 고애자(생물교육과 15회) 동문은 지난 겨울 내내 스웨터 차림이었다. 비교적 성공한 이민 생활에서 지금은 은퇴한 두 내외는 여행과 봉사 활동, 친구들을 만나며 조금은 여류롭고 즐기며 지내는 편이다. 이름있는 명품도 아니고 칼라나 디자인이 세련된 것도 아닌 약간은 촌스러운 할머니 스타일의 스웨터를 입고 자랑스럽게 다니는 모습에 많은 친지들은 의아해 했다. 평소 멋쟁이로 소문난 그 분의 차림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웬 스웨터냐고 묻는 이들에게 이 촌스러운 스웨터는 손으로 짠 것이고 그것도 혼자가 아닌 네 사람의 작품이라고 한다. 앞판, 등판에 양쪽 소매를 각각 그분의 대학 동창 네 사람이 손수 짜고 합친 것으로 세상의 어느것 보다 소중하고 따듯하며 동시에 고국을 생각케 하고 학창 시절을 떠올리게 하며 그리운 얼굴들이 수 놓은 옷이니 자랑할만도 하다. 어느 모임에서 스웨터 자랑을 실컷 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 옷에 동봉된 김옥진 동문의 편지가 생각났다.

"전략"

우리 여자 동기 동창 아홉 명 중 4명이 미국에 살고 5명이 서울에 살잔니? 하지만 같이 만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는 편이지. 각자 일에 매어 사느라 못 만났고 흩어져 살으니 또 그렇고?. 그래서 서울에 사는 다섯 명이 독한 맘 먹고 작년부터 자주 만나기 시작했단다. 다행이 모두 정년을 했고 손주나 집안 일에 아주 자유롭지만은 않지만 열심히 만나고 수다떨고 맛있는 집 찾아 다니고 하여튼 자주 보니 좋더구나. 그런데 무언가 만나고 돌아갈 때마다 조금은 성이 차지 않는 기분이더라. 말하자면 모이는 목표나 구심점이 약한 거지. 몇 차례 만나면서 이런 느낌을 얘기하니 모두가 비슷하다는 거야. 허구한 날 남편 얘기, 손주 자랑 그거 몇 번 만나니 바닥난 기분이고, 또 다 늙어서 무얼 하니? 돈도 시간도 그렇고? 너무 목표가 크면 부담스럽고 그리고 은퇴한 뒤의 편안함도 지키고 싶고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한군데 모여 뜨개질을 하자는 제안이 나왔단다. 서로 배워가며 손주들 장갑도 뜨고, 목도리도 뜨고, 음악도 듣고, 맛있는 음식도 시켜 먹고 그래서 오디오 설비가 좋은 우리 집으로 일주일에 한번 모여 시작한 모임이 꽤 되었고 생각보다 반응이 좋은 편이란다. 특히 좋은 것은 작업을 하면서 수다를 떨 수 있고 서로 배울 수 있으며 남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점이지. 어느 날 김덕희, 고준아, 이정옥 그리고 나 네 명이 모인 날 여행얘기 하다가 미국 여행 때 너의 집에서 신세진 얘기가 나왔고 이제 우리 솜씨도 좀 늘었으니 스웨터 하나 짜서 네게 보내주면 어떨까 하는 의견에 만장일치, 분담 작업으로 결정이 났단다. 앞판을 내가 맡고 등판은 덕희가 준아와 정옥이가 소매 한 짝 씩 그리고 나온 작품이란다. 프로도 아니고 아직 솜씨가 좀 그렇지만 우리 깐에는 한코한코 뜨면서 같이 갔던 채집여행, 졸업여행, 연애하던 얘기 등 너에 관한 모든 추억과 정을 담은 옷이니 입을 때마다 너도 우리 생각 많이 했으면 좋겠다. 멋쟁이 네게 어쩔까 싶다만 할머니 스타일 치곤 괜찮은 편이고 특히 중요한 점은 한국에서 내로라 하던 여자 교장, 교수, 교사의 합작 품으로 돈 주고 살 수 없는 세상에 하나 뿐인 옷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좌로부터 김옥진 고준아, 고애자, 안홍숙, 김덕희, 이정옥 동문)

나이 탓에 빨리 뜨지 못하고 모여서 작업하는 시간이 적지만 이제 우리들 목표는 만만치 않단다. 지금은 미시간에 있는 배정희 스웨터를 시작했지만 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차례로 보낼 예정이고 앞으로 뜻을 같이 할 분들을 더 모아 우리 보다 어려운 분들에게 사랑이 담긴 스웨터 보내기 운동이라도 해볼까 싶단다. "후략"

그리운 얼굴들, 입학했을 때의 쌩쌩한 얼굴과 얼마 전에 본 할머니 모습의 얼굴들이 뒤 섞이며 어른댄다. 둘러앉아 수다 떨며 뜨개질하는 모습들, 어느새 그 틈에 끼어있는 자기 모습도 보인다. 뉴욕의 쌀쌀한 날씨도 이 스웨터 덕에 훈훈하기만 하다. 내일은 털실 가게에 들러 실이라도 듬뿍 사서 보내야 겠다.

이국의 하늘 아래 고국 쪽을 향한 고애자 동문의 눈에 맺힌 이슬은 멀리 서울 하늘에 안개가 되어 내린다.

(생물교육과 17회)

同窓會 消息

母校 學長에 尹正一 敎授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제29대 曺昌燮 (獨·18)학장의 후임으로 尹正一 (敎·19) 교수가 제30대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지난 2월 26일 오후 5시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본회의실에서 서울대학교 본부 임원, 각 단과대학장, 전임 학장 및 교수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창섭 학장의 이임과 윤정일 교수의 취임식을 거행하였다.

윤 학장은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교육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고 일리노이대 교수,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 대통령 교육정책자문회의 상임전문위원을 역임하였으며 1985년 모교에 부임하여 교육연구소장, 사대부설 교육행정연수원장 겸 중등교육연수원장을 지냈다.

辛東一 회장을 대리하여 참석한 兪千根 (敎·17) 상임부회장은 '우수한 많은 학생이 교육계에 투신하여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졸업생들이 동창회에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축사를 하였다.

5個學科 同門會長 改選

國語 : 朴燦久　　社會 : 金德煥
數學 : 尹雄燮　　物理 : 李鍾郁
地學 : 梁敎錫

지난 해 연말부터 금년 초에 걸쳐 5개의 학과 동문회장이 바뀌었다.

국어교육과는 朴燦久 (13회) 서울시 교육위원, 사회교육과는 金德煥 (17회) 서울외국어고등학교장, 수학교육과는 尹雄燮 (21회) 서울고등학교장, 물리교육과는 李鍾郁 (21회) 은곡공업고등학교장이며 본회 부회장이

❖ 2004年度 定期總會 개최 안내 ❖

會則 제9조에 의거 2004년도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동문들의 많은 參席 바랍니다.

- 日時 : 2004년 5월 31일(月) 오후 6시 30분
- 場所 :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소연회실
- 案件 : (1) 2003년도 決算報告　(2) 2004년도 事業計劃(案)
  (3) 2004년도 豫算(案)　(4)任員改善
  (5) 其他
- 會費 : 20,000원(당일 납부)
  ※ 준비 관계로 참석 여부를 사전에 아래 전화로 연락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회 전화> (02) 720-8116, (02) 720-8120
- 交通 :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하차

※ 개별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동창회관 건립기금 납입동문
(2004. 1. 3 ~ 3. 17)

이중해 (경여사8)	50,000
이응백 (국2)	1,000,000
정우상 (국10)	100,000
방효정 (국12)	100,000
윤백중 (생13)	200,000
최병주 (생13)	100,000
이성구 (국15)	100,000
정항시 (심17)	50,000
박행준 (국17)	100,000
고두원 (체17)	50,000
김창철 (심18)	50,000
오두범 (국21)	200,000
박재공 (사22)	100,000
김명수 (교28)	100,000
기금 누계	**총 1,575만원**

그리고 지학교육과는 梁敎錫 (21회) 서울과학고등학교 장이 선출되어 학과 동문회장의 일을 보게 되었다.

淸冠奬學生에 金大煥, 朴宣運

우리 동창회에서는 지난 해 9월 재단법인 淸冠奬學會를 설립하고 2004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었다.

재단 기본재산 3억원의 이자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사범대학에 장학생을 추천 의뢰하여 물리교육과 4학년 金大煥군과 사회교육과 3학년 朴宣運양을 추천 받았다.

동창회에서는 지난 2월 5일 동창회 사무실에서 한 사람 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金大煥군

朴宣運양

同窓會長賞 李羨智 양

同窓會 新入會員 323名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2004년 2월 졸업생 323명이 졸업하여 우리 동창회의 신입 회원이 되었다.

지난 2월 26일 11시 사범대학 교수회의실에서 각과 우수 졸업생에 대한 상장과 상품을 수여하였는데 동창회장상은 생물교육과를 졸업한 李羨智 양이 선정되어 상장과 상품으로 손목 시계를 받았다.

제 23회 동문 친목 등산대회 개최

본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 23회 친목등산대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동문들이 참가하여 친목을 다지는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가족 동반도 환영하며, 학교와 직장의 분회장님께서는 많은 동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자 :** 2004년 4월 11일 (일)
- **집합 시간 :** A조, B조 (등산팀)
  - 오전 9시 30분
  C조 (대학 구내 산책팀)
  - 오전 11시 30분
  ※ 점심시간 집합 : 12시 30분
- **집합 장소 :**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뒷편 잔디밭
- **참 가 비 :** 10,000원 (당일 납부)

※참고 사항 : ■등산대회는 A, B, C조로 구분함.
A조는 본격적으로 등산을 하실 분
B조는 쉬운 코스를 등산하실 분
C조는 대학교 구내를 산책하실 분
■중식과 기념품은 본회에서 준비함.
■우천시에도 계획대로 실시함.
■준비 관계로 참가 여부를 사전에 본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 전화〉 (02) 720-8116, 720-8120

※ 교통편 :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하차 — 52, 413번 타고 교수회관 입구 하차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하차(4번 출구) — LG주유소 뒷편에서 마을버스 3번을 타고 교수회관 입구 하차

※ 개별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同窓會館 서울大 總同窓會館과 함께 建立키로

우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는 새로운 동창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해 정기총회에서 회관 건립에 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받은 바 있습니다.

회관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서울시내 교통이 편리하여 임대가 용이한 곳에 부지를 마련하여 회관을 신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창회에서 확보하고 있는 16억원으로는 회관 건립 경비가 많이 모자라 1구좌당 5만원씩 성의껏 여러 구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회관건립 기금을 모금 중에 있으며 3월 17일 현재 1,575만원이 모금되었습니다.

그동안 辛東一 회장의 노력으로 회관 건립 부지만 마련되면 건물은 지어서 기부하기로 어떤 복지재단의 확약을 받고 부지 매입을 위해 전 서울시내를 알아보았으나 토지가 비싸 부지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도 동창회관을 신축 준비 중이었고 우리 동창회 辛東一 회장이 총동창회 신관건립위원회 수석부회장 겸 재정분과위원장을 맡아서 주도적으로 회관 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총동창회관을 처음에는 서울대학교 구내 교수회관 자리에 건축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수익성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총동창회관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마포구 도화동에 짓기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도심재개발구역으로 교통이 좋아 임대가 용이하고 수익성도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로 건축되는 서울대학교 총동창회관은 653평의 부지에 지하 6층 지상 16층으로 연건평 7,500평의 최신식 건물을 짓기로 하였는데, 지하 6층은 기계 · 전기실, 2~5층은 주차장, 1층은 상가, 지상 1층은 은행 등 근린 생활시설 2~13층은 업무 시설, 14층은 연회장, 15층은 리셉션홀 16층은 다목적실로 되어있습니다.

동창회에서는 동창회관 건축을 위한 부지 매입이 어렵고 또한 별도의 독립 건물을 신축할 경우 건물의 유지 관리와 인건비 충당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는데 이러한 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 우리 사범대학 동창회관을 총동창회관 건축과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2월 6일 회관건립추진위원회, 2월 25일 집행부 회장단 및 이사 · 감사 연석회의, 3월 9일 고문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동창회관 건립 계획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우리 동창회에서는 현재 확보하고 있는 자금에 동문들께서 협조해주시는 회관건립기금을 합쳐 총동창회에서 구입하려는 부지 일부를 우리 동창회에서 매입하여 보태고 우리 사범대학 동창회의 지분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우리 동문들의 회관 건립 기금 모금 협조에 따라 우리가 총동창회관에서 차지하는 지분이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문들께서는 회관 건립 기금 모금에 성의껏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4년 3월

회관 건립 기금 모금에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장 신 동 일
회관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최 태 상

회관 건립 기금 모금

- 단위 : 1구좌당 5만원 (여러 구좌 납부 가능)
- 모금 계좌 : 하나은행 221-910082-72807
- 예금주 신동일

※ 성명, 졸업학과, 졸업횟수 통보
※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 발급

회비 납입 내역

(2003. 12. 13 ~ 2004. 3. 9)

4월부터 연회비를 새로 납부해야 됩니다.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단 · 임원회비

이혜성 (국15) 500,000
이숙영 (화16) 300,000
하순봉 (독17) 100,000

이사회비

(경사)
손윤선 (단강7) 50,000
(교원)
변해명 국75년 50,000
(국어)
구인환 (7) 50,000
손수일 (8) 50,000
김봉군 (17) 100,000
이상우 (18) 50,000
(영어)
신찬우 (5) 100,000
최영상 (14) 50,000
우근용 (22) 100,000
(사회)
박상규 (11) 100,000
(역사)
김홍섭 (30) 50,000
(지리)
임창선 (29) 50,000
(화학)
남창렬 (22) 50,000
(생물)
정근호 (11) 50,000
윤백중 (13) 50,000
(지학)
이인규 (18) 100,000
이연우 (30) 50,000
(가정)
유영주 (14) 50,000
(체육)
박종달 (6) 50,000
정웅근 (20) 50,000
최기숙 (22) 50,000

일반회비

▶경기여고 (34명) 340,000
김홍식 (국22)
이시우 (국28)
이호균 (국28)
이계림 (국38)
박승효 (지학21)
심정길 (지학22)
최홍기 (수33)
하희숙 (수34)
임영옥 (수36)
임수오 (수37)
전혜진 (수40)
박동주 (수42)
가홍현 (영29)
홍정의 (영32)
김광수 (영34)
이행열 (영34)
마지현 (영52)
신인화 (영53)
이승규 (역31)
이인석 (역37)
이윤선 (역40)
이혜성 (사33)
김기영 (사38)
김성광 (체19)
이범규 (체37)
문성배 (지39)
박미정 (지39)
맹혜열 (가21)
송정수 (물28)
정갑웅 (생28)
김현옥 (화42)
박선엽 (윤39)
신혜란 (불42)
문지연 (독43)

▶서울대사대부설중 (34명) 640,000
유기동 (체22)
김낙영 (체39)
임길선 (체40)
강순원 (체42)
신현주 (체45)
이성구 (국27)
이재홍 (국44)
조상주 (국44)
김근수 (국45)
김나영 (국45)
고은주 (국47)
주진택 (국49)
구본희 (국50)
박형곤 (윤39)
김도건 (윤44)
최근순 (윤50)
강운중 (수43)
김수미 (수44)
강은주 (수45)
송영준 (수45)
한상철 (사39)
최병철 (사43)
이병선 (지41)
문대영 (지43)
김정겸 (역42)
강성주 (역43)
홍영희 (영42)
김한주 (영46)
김춘수 (영47)
이현주 (영53)
장정찬 (생33)
최승욱 (지학39)
박미우 (화42)
강충호 (물42)

▶한국교원대학교(30명) 600,000
임영무 (체28)
주명덕 (체32)
조순묵 (체34)
박배훈 (수20)
이재학 (수29)
신인선 (수34)
김명수 (교28)
임병덕 (교37)
권재술 (물23)
김범기 (물23)
장세중 (물24)
최돈형 (물25)
최병순 (화27)
백성혜 (화40)
차덕웅 (독18)
황도생 (독21)
정완호 (생16)
이길재 (생28)
김일기 (지15)
남상준 (지29)
이민부 (지31)
정진우 (지학27)
경재복 (지학40)
한철우 (국24)
배두본 (영17)
한상헌 (불25)
최병모 (사26)
김명렬 (수20)
전조영
이경화
(경사)
김주익 (본2) 20,000
(경여사)
김귀덕 (강6) 20,000
김은주 (강10) 20,000
최정숙 (심6) 20,000
임혜옥 (연4) 30,000
황남룡 (연4) 20,000
(예과)
함원식(문9) 20,000
(교육)
전중철 (7) 20,000
방정애 (13) 20,000
김성기 (19) 20,000
김동균 (23) 20,000
한춘기 (25) 20,000
변범식 (46) 20,000
(교심)
정항시 (17) 20,000
김창철 (18) 20,000
(국어)
최강문 (11) 20,000
박희숙 (13) 20,000
김성식 (14) 20,000
이성구 (15) 30,000
(영어)
민종식 (26) 30,000
박약우 (28) 20,000
김남훈 (33) 20,000
김영순 (44) 20,000
(독어)
김성대 (18) 20,000
신정옥 (18) 30,000
김다림 (52) 20,000
선혜윤 (54) 30,000
(불어)
정일섭 (22) 30,000
(사회)
성기종 (11) 20,000
정광삼 (16) 20,000
박재공 (22) 20,000
남태욱 (24) 20,000
안주희 (30) 20,000
(역사)
김동운 (21) 30,000
(지리)
강신호 (13) 20,000
이우범 (14) 20,000
오기세 (33) 20,000
(수학)
이용률 (9) 20,000
김남옥 (13) 20,000
(물리)
김찬균 (11) 20,000
이규랑 (18) 20,000
최경식 (23) 30,000
이상욱 (35) 20,000
김기순 (43) 20,000
김종엽 (51) 20,000
(화학)
김영곤 (15) 20,000
이덕상 (19) 20,000
(생물)
이정태 (12) 20,000
조경헌 (12) 20,000
김경수 (17) 20,000
김용성 (31) 20,000
변정수 (42) 20,000
(지학)
강하구 (19) 20,000
윤석원 (28) 20,000
(가정)
홍성숙 (7) 20,000
이정덕 (12) 20,000
(체육)
김동학 (11) 20,000
김영윤 (17) 20,000
윤성열 (17) 30,000
이지성 (55) 20,000

성명미상 3명 60,000

❖ 年會費 納付 案內 ❖

우리 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마음으로 年會費를 납부해 주시는 동문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비는 1년에 한번만(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말까지) 내주시면 됩니다. 동창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비를 납부하실 때는 졸업학과와 횟수, 성명을 꼭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봉한 지로 용지 사용

은행지로번호 : 7521964
입금계좌번호 : 221-910002-43405 하나은행 (예금주 신동일)

〈회비 내역〉

· 會長	1,000,000 원 이상
· 副會長	500,000 원 이상
· 監事	300,000 원 이상
· 常任理事	300,000 원 이상
· 部長	300,000 원 이상
· 次長	200,000 원 이상
· 理事	50,000 원 이상
· 一般會員	20,000 원 이상

同門 動靜

停年退職
(2004. 2. 28)

- 高元永 (行 · 16) 언북중학교 교장
- 閔興基 (地 · 16) 경기고등학교 교장
- 權永煥 (物 · 16) 방학중학교 교장
- 辛宇鉉 (物 · 16) 용곡중학교 교장
- 鄭玩鎬 (生 · 16)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 李相喆 (社 · 16) 사당중학교 교장
- 余德濬 (心 · 17) 삼척대학교 교수
- 沈東鎭 (社 · 17) 노원고등학교 교장
- 李德熙 (社 · 17) 등원중학교 교장
- 沈亨燮 (數 · 17) 한천중학교 교장
- 梁大洙 (數 · 17) 공항고등학교 교사
- 金末順 (物 · 17) 덕수중학교 교장
- 白貞一 (學 · 17) 양평중학교 교장
- 宋大亮 (學 · 17) 보성여자중학교 교장
- 朴文學 (家 · 17) 홍은중학교 교장
- 李富雄 (英 · 18) 동작고등학교 교장
- 申漢均 (獨 · 18) 부평고등학교 교장
- 金光男 (歷 · 18) 거원중학교 교장
- 池正夫 (歷 · 18) 개원중학교 교장
- 梁源榮 (地 · 18) 휘문고등학교 교장
- 金相一 (數 · 18) 서울시 강남교육청 교육장
- 趙賢修 (數 · 18) 인헌고등학교 교감
- 洪文子 (家 · 18) 명일여자고등학교 교장
- 朴相龍 (體 · 18) 장위중학교 교장
- 嚴基煥 (地 · 19) 인천공항고등학교 교장
- 兪在根 (地 · 19) 상계고등학교 교사
- 裵祥植 (國 · 20) 청담중학교 교장
- 金正植 (體 · 22) 서울대 사대부설여자중학교 교장

서울시 敎育廳 人事
(2004. 3. 1)

- 李英萬 (化 · 23) 경기고등학교 교장
- 宋寅浩 (英 · 24) 동작고등학교 교장
- 梁東吉 (體 · 25) 언남고등학교 교장
- 高强坤 (敎 · 26) 등촌고등학교 교장
- 李載洪 (敎 · 26) 광남중학교 교장
- 李洪子 (國 · 27) 서울대사대부설여중 교장 (서울대 인사)
- 李炳好 (英 · 27) 여의도중학교 교장
- 金弘燮 (歷 · 30) 은중중학교 교장
- 金東雲 (歷 · 21) 방이중학교 교장
- 任東元 (英 · 28) 청운중학교 교장
- 金準午 (體 · 21) 등원중학교 교장
- 朴昭雄 (歷 · 26) 언남중학교 교장
- 金榮愛 (生 · 21) 대치중학교 교장
- 嚴榮周 (生 · 24) 거원중학교 교장
- 羅智基 (體 · 21) 번동중학교 교장
- 宋秀男 (物 · 21) 목일중학교 교장
- 李完紀 (體 · 30) 덕산중학교 교장
- 金鍾奎 (化 · 19) 관악중학교 교장
- 趙淸慈 (生 · 18) 중원중학교 교장
- 劉義植 (社 · 31) 방학중학교 교장
- 睦昌洙 (生 · 26) 강동교육청 교육장
- 黃南澤 (社 · 21) 성동교육청 교육장
- 朴東鎬 (體 · 24) 동작교육청 장학관 (과장)
- 鄭鳳燮 (數 · 25) 교육정책총괄 담당관
- 辛豪根 (敎 · 32) 북부교육청 장학관 (과장)
- 鄭會台 (生 · 31) 성북교육청 장학관 (과장)
- 宋錫源 (敎 · 34)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연구관
- 申炳燦 (數 · 37)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연구관
- 卜玩根 (生 · 31) 자운고등학교 교감
- 崔禹燮 (物 · 28) 서울고등학교 교감
- 朴智勳 (數 · 26) 금옥여자고등학교 교감
- 崔玉洙 (體 · 29) 경기여자고등학교 교감
- 李起成 (化 · 35) 경복고등학교 교감
- 李正琨 (數 · 31) 명일여자고등학교 교감
- 崔秉洙 (學 · 31) 창동고등학교 교감
- 張 天 (體 · 35) 창덕여자고등학교 교감
- 張祐碩 (地 · 33) 석관고등학교 교감
- 宋在旭 (國 · 27) 인헌고등학교 교감
- 鄭文鎭 (化 · 31) 미성중학교 교감
- 李泰昱 (學 · 25) 녹천중학교 교감
- 吳宗均 (學 · 28) 풍성중학교 교감
- 朴正植 (生 · 20) 석관중학교 교감
- 尹璣燮 (獨 · 28) 반포중학교 교감
- 皮在鎭 (體 · 29) 개봉중학교 교감
- 金東燮 (體 · 33) 창덕여자중학교 교감
- 金煥吉 (歷 · 29) 상현중학교 교감
- 姜舜圭 (體 · 36) 신월중학교 교감
- 安世煥 (英 · 28) 목동중학교 교감
- 金東澧 (體 · 33) 공항중학교 교감
- 李銀淑 (國 · 35) 강동교육청 장학사
- 金昌東 (數 · 33) 동부교육청 장학사
- 李善庚 (地 · 40) 성북교육청 장학사
- 朴光勳 (體 · 40) 성동교육청 장학사
- 李敬任 (體 · 32) 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 崔廣洛 (佛 · 34) 학생교육원 교육연구사
- 金基順 (物 · 43) 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 장학사
- 吳錫宗 (敎 · 34) 교원정책과 장학사
- 朴仁圭 (敎 · 35) 중등교육과 장학사
- 李珍影 (體 · 39) 평생교육체육과 장학사
- 金南訓 (英 · 33) 강서교육청 장학사
- 林榮宣 (體 · 40) 강남교육청 장학사
- 羅澄基 (敎 · 37)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 金鎭萬 (物 · 33)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 李鎭沅 (敎 · 37) 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近況/異動

- 裵祥植 (국 · 22) 전 청담중 교장, 본회 출판부 이사, (주) 21CM 이사 취임 (2004. 3. 20)
- 朴培勳 (수 · 20)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취임 (2004. 3. 16)
- 崔泰祥 (역 · 10) 전 경복고 교장, 본회 고문, 한국수학여행협회 회장 취임 (2004. 3. 2)
- 金在潤 (체 · 22) 수원산남중 교장, 경기지회장, 여주교육청 학무과장으로 영전 (2004. 3. 1)
- 孫榮津 (독 · 31)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전무,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사장에 선임 (2004. 2. 25)
- 閔丙暻 (사 · 9) 본회 고문, 한국광고주협회 회장으로 재선임 (2004. 2. 25)
- 徐 勳(교 · 33) 국가정보원 단장,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정보관리실장으로 임명 (2004. 2. 23)
- 張忠植 (역 · 9) 단국대 이사장. 국제로타리 창립 99주년 기념 합동 주회 개최 (2004. 2. 23)
- 鄭東華 (국 · 10) 의식개혁협의회 회장, '국제 정세와 한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창립 6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2004. 2. 21)
- 鄭浩永 (영 · 24) 국회도서관장, 중앙대에서 '입법 평가를 위한 법 경제학적 접근 방식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음. (2004. 2. 20)
- 李敦熙 (교 · 13) 전 교육부장관, 민족사관고등학교교장, 한국교육 삼락회 총연합회에서 주관한 교육삼락 포럼에서 '교육에 있어서의 평등주의와 능력주의'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 (2004. 2. 16)
- 卞柱仙 (영 · 17) 세계걸스카우트 아태지역 의장, 본회 부회장, 걸스카우트 세계연맹 제35차 아태지역 이사회 개최 (2004. 1. 28~1. 31)
- 林英鹿 (국 · 30)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외교통상부다자통상 국장에 임명 (2004. 1. 20)
- 崔秉模 (사 · 26) 한국교원대 통일교육연구소장, '통일 교육의 내용학적 기초 – 북한의 인문 사회 과학 교육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 개최 (2004. 1. 15)
- 鄭玩鎬 (생 · 16) 전 한국교원대 총장, 본회 부회장, '무심코 던진 한마디'로 「문예비전」11~12월호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2003. 12. 26),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차기 회장 선임 (2003. 12. 27)
- 高龍柱 (체 · 42) 희망과 행복을 추구하는 미래정치연구소장, 충북 청주시에 '고용주 박사의 생활체육아카데미' 개원 (2003. 12. 10)
- 金東吉 (화 · 14) 경인양행 회장,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동탑산업 훈장을 받음. (2003. 11. 30)

慶弔事

- 朴祥奎 (사 · 11) 양남기업(주) 대표, 令息 결혼 (2004. 3. 28)
- 金學魯 (물 · 13) 전 용곡중 교감, 令息 결혼 (2004. 3. 13)
- 李春圍 (체 · 14) 전 당곡고 교장, 令愛 결혼 (2004. 3. 12)
- 魏聖沼 (심 · 17) 전 김천부시장, 令愛 결혼 (2004. 2. 26)
- 朴文學 (가 · 17) 전 홍은중 교장, 令愛 결혼 (2004. 2. 8)
- 曺昌燮 (독 · 18) 서울대 사대 교수, 令愛 결혼 (2004. 2. 7)
- 文炳學 (수 · 17) 전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회장, 본회 부회장, 令愛 결혼 (2004. 1. 10)
- 金華永 (교 · 17) 삼풍주유소 사장, 令愛 결혼 (2003. 12. 28)

- 崔鎭五 (사 · 19) 담당실업(주)대표 別世 (2004. 3. 13)
- 徐復源 (수 · 15) 전 서울산업대 교수, 父親喪 (2004. 2. 24)
- 李君一 (사 · 27) 서초중 교감 別世 (2004. 2. 2)
- 林載洪 (체 · 24) 천호중 교장, 본회 조직부 이사, 丈母喪 (2003. 12. 24)
- 閔泳賢 (경사연 · 15) 전 진주제일여고 교장 別世 (2003. 9. 19)